

쿠키란(Cookie)? 쿠키 등장 배경

쿠키는 HTTP 환경(웹환경)에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HTTP의 특성상 매번 발생하는 HTTP 트랜잭션은 별개의 요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태를 가질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www.exam.com/page1 요청

후 www.exam.com/page2 를 요청하는 경우 이 둘의 요청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독립적이며, page1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page2를 요청할때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서버 컴퓨터에
대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때문에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HTTP를 stateless protocol(무상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웹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요청(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최초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로그인 인증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였는지 검증시)
- ②.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긴 아이템 정보들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새로고침이나 다른 항목으로 페이지 이동시 장바구니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기 위함)
- ③. 회원가입시 여러 단계에 걸쳐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단계 페이지의 정보들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이전 단계를 거쳤는지 검증시)

이 밖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HTTP 규격상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때 등장한 것이 쿠키(Cookie) 라는 기술입니다. 쿠키는 데이터를 브라우저측에 저장해두고 매번 요청시마다 서버로 쿠키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페이지가 새로고침되거나 새로운 요청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측의 브라우저에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로 이동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새로고침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쿠키는 한지 "데이터 전송 매개체"이다.